

# 요정·미녀새·미녀총잡이... ‘얼짱 경쟁’ 후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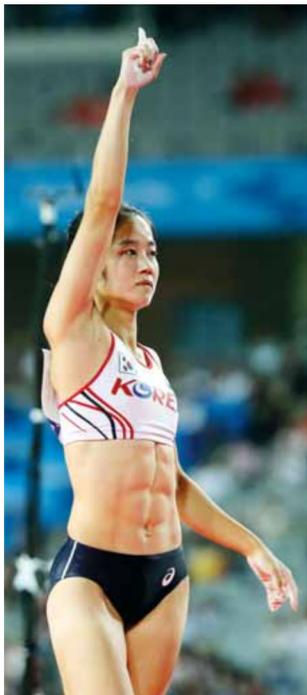


탁구 얼짱 서효원



‘미녀총잡이’ 김설아

‘국제 미녀’ 리듬체조 손연재... 금메달 도전 임은지, 한국여자장대높이뛰기 사상 첫 메달 ‘국민 여동생’ 계보 잇는 김설아, 사격 銀



‘미녀새’ 임은지

인천아시안게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메달 경쟁 뿐 아니라 ‘얼짱’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출중한 실력을 갖춘데다 빼어난 외모까지 더한 그들의 거친 숨과 땀을 보노라면 묘한 매력에 빠져들게 한다.

‘미녀 새’, ‘미녀 총잡이’, ‘미녀 검객’, ‘핑퐁 미녀’ 등 많은 미녀 스포츠 선수들이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을 후끈 달구고 있다.

‘공식 얼짱’은 단연 리듬체조의 손연재(20·연세대)다. 아기 같은 외모에 완벽한 몸매, 탁월한 실력까지 두루 갖춘 월드 스타다. 손연재는 4년 전인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중국 매체가 선정한 ‘4대 미녀’에 뽑힐 정도로 화제였다. 이번 대회에서 손연재는 한국 리듬체조 역사상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손연재는 1일에 이어 2일 ‘금빛 연기’를 펼친다.

‘핑퐁 미녀’ 서효원(27·한국마사회)도 중국까지 미모

소문이 났었다. 예쁘장한 얼굴, 톱랭커의 실력으로 지난 4년간 ‘폭풍 성장’을 했다. 지난 27일 탁구경기 시작과 함께 서효원의 미모는 네티즌들 사이에 뜨거운 화제가 됐다. 하얀 피부에 쌍꺼풀없이 큰 눈, 오톱한 코, 예쁘장한 얼굴로 고개를 가웃하며 폴짝폴짝 날아오르는 서효원의 플레이에 탁구 팬들이 매료됐다.

육상에서는 ‘미녀 새’들이 단연 눈에 띈다. 지난 30일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메달 경쟁을 펼친 임은지(25·구미시청)와 최예은(20·익산시청)은 연예인 못지 않은 얼굴에 탄탄한 몸매로 아시아 팬들을 사로잡았다.

임은지는 식스팩이 선명할 정도로 다져진 몸매와 뚜렷한 이목구비를 자랑해 그동안 ‘한국의 미녀새’로 명성을 날렸다. 그리고 이번에 첫 아시안게임 출전에서 4m15로 3위를 기록, 한국 육상 아시안게임 여자장대높이뛰기 사상 첫 메달을 획득했다.

이 종목에서 4위로 아쉽게 메달을 놓친 최예은도 ‘육상계의 박수진(배우)’으로 화제가 됐다. 최예은은 175cm의 훗칠한 키, 탄탄한 몸매, 옛된 얼굴로 ‘남심’을 흔들었다.

2012 런던올림픽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미녀 검객’ 김지연(26·익산시청)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개인전 은메달을 따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과시했다.

‘미녀 검객’이 있다면 ‘미녀 총잡이’도 있다. 고교 명사수 김설아(18·창원봉림고)가 주인공. 김설아는 옛된 외모로 김연아-손연재의 뒤를 잇는 ‘국민 여동생’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김설아는 50m 소총 3자세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기록했다.

배구계에는 ‘수지’가 있다. 곽유화(21·흥국생명)는 2011년 한국도로공사에 입단해 올해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었다.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를 닮은 청순한 외모로 지난해 ‘배구 얼짱’ 1위에 뽑히기도 했다. 한송이(30·GS칼텍스)는 원조 얼짱으로 여러 번 유명세를 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리듬체조 단체전 결선 및 개인전 예선에서 한국의 손연재가 볼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리듬체조 5대 관전 포인트

- ①쪽 뺨은 자세인가
- ②기술은 탁월한가
- ③180도 이상 유연한가
- ④음악·동작 어울리나
- ⑤독창성은 있는가

대중성과 실력을 겸비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리듬체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리듬체조를 어떻게 하면 보다 즐겁게 즐길 수 있을까. 대회 리듬체조 단체전이 펼쳐지는 1일 정인화(48) 대

한체조협회 연구위원(전 리듬체조 대표팀 코치)으로부터 리듬체조 관전법을 들어봤다.

우선 리듬체조 점수는 20점 만점이다. 난도(D·Difficulty) 점수 10점, 실시(E·Execution) 점수 10점으로 나뉜다. 지난해에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예술점수 10점이 분리돼 30점 만점이었다.

기술을 강조하고 심판 관점에서 주관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점수 체계가 개편된 것이다.

가로와 세로 각각 12.50m(41피트)짜리 정방형 매트 위에서 구르고 뛰고 수구(후프, 볼, 곤봉, 리본 등 기구)를 공중에 던진 뒤 정확한 타이밍으로 잡아내는 리듬체조의 세분화된 기술 요소 하나하나를 알기는 쉽지 않다.

일반인들이 기억해야 할 기본적인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자세다. 점프 때 선수의 발가락은 쪽 뺨에 있어야 한다. 무릎 역시 구부러져서는 안 된다. 신체가 팽팽한 긴장을 유지한 채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모든 기술은 계획된 것처럼 보여야 한다.

두 번째는 수구를 조작하는 기술이 탁월해야 한다. 선수는 후프, 볼, 곤봉, 리본 등을 끊임없이 사용해야 한다. 점프를 높이 뛰거나 몸을 활처럼 휘어 밸런스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 수구를 조작해야 한다. 수구를 들고만 있

으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구가 떨어뜨리는 순간 감점으로 연결된다. 물론 수구가 포디엄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더 큰 감점을 받게 된다.

세 번째는 유연성이다. 선수들은 점프 때 다리를 최소 180도 이상으로 벌려야 한다. 대부분의 선수는 그 이상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일부 선수들은 등, 다리, 어깨를 이용해 일반인들은 범접하기 어려운 정도의 유연성을 뽐낸다.

네 번째는 연출이다. 동작과 기술이 음악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음악의 리듬을 타면서 수구를 조화롭게 조작해서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산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독창성이다.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선수들과는 달라야 한다. 후프, 볼, 곤봉, 리본을 공중으로 던져서 잡는 동작 자체가 까다롭거나 복합 동작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곤봉이나 리본 등 수구를 공중으로 뛰어올린 뒤 수직으로 회전하는 피봇과 수평으로 구르는 동작을 연이어 펼친다면 높은 난도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동작을 끝내는 타이밍과 수구를 잡는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수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몇 발자국을 옮겨서 수구를 받으면 점수가 깎인다.

/연합뉴스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